

## 한국어 부정 구문 연구를 위한 말뭉치언어학적 접근\*

남길임  
(경북대학교)

### <Abstract>

**Kilim Nam. 2017. A Corpus Linguistic Approach to the Study of Korean Negation Construction.** *Korean Semantics*, 56.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it aims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Korean negation is used in written, spoken corpus and online product review corpus by contrast of affirmation. Second, it examines the co-relationship between the meta-function of negation and communicative purpose of each register. There have been few quantitative studies of Korean negation even 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performed from the perspective of syntax and semantics. This study analyses Korean negation forms in the level of clause unit and examines the function of negation according to register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roportion of Korean negation is realized as the order of spoken corpus>written corpus>productive reviews. 2) ‘An’ negations are much more frequently used in all registers than ‘mos’ negation. 3) There seems to be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frequencies of negation types and communicative functions of registers.

핵심어: 부정(negation), 문법부정(grammatical negation), 어휘부정  
(lexical negation), 말뭉치언어학(corpus linguistics), 상품평

---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2863).

(product review), 메타 기능(meta function)

## 1. 서론

한 언어의 문장 또는 절에서 ‘부정(negation)’이 어떤 형태와 기능, 분포를 보이고 장르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를 계량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일은 이론언어학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응용적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 언어의 화자가 의사소통에서 어떤 유형의 부정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아는 것은 그 언어의 의사소통 전략 전반을 밝히는 데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문서 요약,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등의 언어 처리에서 사실적 정보와 주관적 요소를 추출하고 관리하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기능문법에서는 기능 범주로서의 ‘부정’에 주목하고, 부정이 긍정에 비해 유평적이며, 강한 단언(strong assertion)이고, 이러한 특성이 질적 분석뿐만 아니라 빈도를 기반으로 한 양적 분석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음을 논의해 왔다.

Halliday & James(1993)에서는 영어의 경우 정형동사절(finite clause)에서 긍정절과 부정절의 비율은 90:10로 실현됨을<sup>1)</sup>, Givón(1993)에서는 학술논문과 소설에서 차지하는 부정문의 비율이 각각 전체 문장의 5%, 12%로 달리 나타남을 실제 말뭉치의 분석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전자의 연구는 부정의 범주가 일정한 경향성을 띠고 나타남을 증명했고, 후자의 경우는 그러한 경향성이 장르에 따라 달리 실현됨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최근 대용량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Morane et al.(2011), Wiegand et al.(2010) 등에서는 부정의 기능이 단일 부정소의 추출만으로 탐지되기 어렵고, 장르나 주제에 따라 상당히 달리 실현된다는 것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부정의 범주가 왜 장르에 따라 다른 빈도로 실현되는지, 그것이 부정의 다의적 기능과

1) 이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영어의 경우 극성 체계는 부정문이 90% 이상으로, 0.5:0.5의 등위 체계(equi system)와 0.99:0.01의 편향 체계(skew system)의 스펙트럼 내에서 ‘편향 체계’에 속한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부정문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통사 의미적 관점에서 주목을 받아 온 한편, 부정에 대한 담화화용적 접근, 말뭉치언어학적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부정 구문의 다의성, 문법화에 따른 의미 기능(김동식 1982, 구현정 2008 등), 특정 장르에 나타나는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에 대한 빈도 및 의미 기능의 차이(송현주 2011, 한송화 2014), ‘없다, 아니다, 말다’ 등 어휘 부정에 대한 연구(우형식 1998, 남길임 2010, 송창선 2013)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어에서 문장이나 절 단위를 중심으로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을 분석하거나 사용역에 따른 변이, 부정 패턴 등을 분석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문어와 구어, 온라인 상품평 텍스트(product review text)<sup>2)</sup>의 세 가지 사용역에 나타난 부정 표현의 빈도를 통해 절 단위에 나타난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추출하고, 이를 말뭉치언어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부정의 비율, 특정 부정 표현의 빈도 등이 사용역 또는 장르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데, 부정 범주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한국어 부정문의 기능부담량을 확인하고, 사용역에 따른 부정의 기능과 의미를 밝히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정 표현의 양적 고찰을 위주로 수행되므로 부정 표현의 범주 설정, 계량 단위의 설정 등이 연구 설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상당 부분이 부정의 범주 설정과 계량의 방법론에 할애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을 논의

2)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문어와 구어는 21세기 세종계획 균형말뭉치의 결과물로, 문어와 구어를 대표하는 다양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상품평’은 단일 장르로 체계상 문어와 구어와 동등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상품평’ 텍스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문어, 구어 중 어느 장르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온라인과 모바일 텍스트를 대표하는 응용적인 차원에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상품평은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생산한 비교적 짧고 단순한 구조의 텍스트이며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낸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상품평은 부정의 형태와 분포 면에서도 특징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짐작되며, 장르나 사용역에 따른 부정 구문 사용의 변별성을 예시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되, 2.1에서는 ‘부정’ 범주의 계수 절차를 2.2에서는 연구 대상 말뭉치를 소개한다. 3장과 4장은 각 말뭉치에 나타난 부정 범주에 대한 양적 분석으로, 3장에서는 문어, 구어, 상품평 각각의 부정의 비중이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실현됨을 논의할 것이고, 이러한 분포가 각 사용역의 기능, 텍스트 구조와 상관 관계를 가짐을 논의할 것이다. 4에서는 장형 부정과 단형 부정, ‘안’ 부정과 ‘못’ 부정 등의 기존 문법에서 논의되어 왔던 부정의 유형이 각기 사용역에 따라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양적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말뭉치연구에서 비교적 많은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구문 분야의 연구로서 부정 구문의 양적 분석이 가지는 의의와 쟁점을 논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 2.1 ‘부정’의 기능 범주 계수 절차

특정 텍스트에 나타난 부정 범주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을 부정의 기능 범주로 한정할 것인가와 계량의 단위를 문장, 절 등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먼저 부정의 기능과 관련하여, 하나의 문장은 통사적으로 ㄱ)부정소가 있으며 또한 부정의 의미를 가진 유형(‘안 예쁘다’), ㄴ)부정소가 있지만 부정의 의미가 없는 유형(‘참 예쁘지 않니?’), ㄷ)통사적 부정소가 없지만 부정의 의미를 가진 유형(‘미확인/비생산적/불만족 등’)<sup>3)</sup>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소가 있는 유형인 ㄱ)과 ㄴ)을 우선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sup>4)</sup> 또 ‘안’, ‘못’ 부정을 비롯하여 어디까지

3) Givón(1993:202)에서는 부정 표현의 영역을 통사적 부정, 형태적 부정, 내재적 부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not, no’의 부정소를 통사적 부정으로, ‘unhappy’를 형태적 부정, ‘I think she’s sad’를 내재적 부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sad’와 같은 내재적 부정을 어떻게 한정할 수 있을지는 다소 쟁점이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부정소를 중심으로 부정절의 비율을 산출하고, ‘미-, 불-, 비-’와 같은 부정접사 파생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Givón(1993)의 체계에서 통사적 부정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를 부정소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1)과 같이 ‘안’, ‘못’ 부정과 더불어, ‘없다, 아니다’와 보조동사 ‘말다’ 구문을 부정소 추출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

- (1) ㄱ. 부정 부사 ‘안’, ‘못’  
 ㄴ. 부정 보조동사 ‘아니하다(않다)’, ‘못하다’, ‘말다’  
 ㄷ. 어휘 부정의 ‘없다’, ‘아니다’

위 (ㄱ)외에 (ㄴ)의 ‘말다’ 구문과 (ㄷ)을 포함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다소의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ㄷ)부터 살펴보면, 어휘 부정의 대표적인 예로 논의되는 ‘아니다, 없다, 모르다’에서 ‘아니다’와 ‘없다’만을 포함하는 이유는 우형식(2008:185)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이다/아니다’, ‘있다/없다’가 ‘알다/모르다’에 비해 부정과 긍정의 대립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sup>5)</sup> 특히 다음의 예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아니다, 없다’는 상당한 빈도로 ‘-는 것(이) 아니다’, ‘-르 수 없다’의 구문으로 쓰여 선행절 전체의 명제를 부정할 수 있는데 이는 ‘없’이라는 특정한 의미 영역만을 부정하는 ‘모르다’와 다른 특성이다.

- (2) ㄱ. 너 그렇게 사람 무안 주는 거 아냐.  
 ㄴ. 뭐 상대방이 서로 잘 아는 것두 아니잖아요.  
 (3) ㄱ. 아토피 치료제는 돈으로 살 수 없다.  
 ㄴ. 새는 깃털을 뽑으면 날 수 없다.

4) 부정의 해석은 화용적 맥락, 강세 등의 언어 외적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까닭에 계량적 분석에서 이를 구분해 내는 일이 쉽지 않다. 부정이 단순히 긍정에 대립되는 의미 이상을 가진다는 논의, 부정의 창조적인 유표성(우형식 2008: 180) 등에 대한 논의 역시 부정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긍정에 대한 대립으로 전제하고, 이들의 계량적인 분포를 살펴보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부정 범주가 맥락에 따라 산출하는 다양한 기능과 의미 기능적 관점에서의 분포는 본 연구의 결과물을 토대로 별도의 연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우형식(2008:185)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다, 있다’는 부정 부사나 부정의 보조용언이 극히 제약되는 반면, ‘알다’는 ‘알지 못하다’와 같은 부정의 보조용언이 결합하는 예가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4) ㄱ. 비치는 정도는 아니다/불은 스타일은 아니다

ㄴ. 불편한 건 없네요/ 비침은 없구요 좋네요. /고급스러움은 없네요.

위 (2), (3)에서, (2)는 ‘무안 주면 안 된다’(2ㄱ)나 ‘서로 잘 알지 못한다’(2ㄴ)와 같이 부정소 ‘안’, ‘못’이 들어간 문장에 의미를 가지며, (3)은 ‘돈으로 못 산다’(3ㄱ)나 ‘날지 못한다’(3ㄴ)와 같이 ‘못’ 부정 즉, 능력 부정과 유사한 의미로 기능한다.<sup>6)</sup> 실제로 텍스트 장르에 따라서는 ‘-ㄴ 수 없’가 유사한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못’, ‘못하다’ 부정보다 더 많은 빈도로 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는 게 아니다’ 역시 상당한 빈도로 출현한다. 더 나아가 (4)의 상품평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없다, 아니다’는 명사 또는 명사 상당 어구와 결합할 때에도 부정소를 포함한 문장으로 해석되는데, 즉 미세한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4ㄱ)은 ‘비치지 않는 정도다/불지 않는 스타일이다’로, (4ㄴ)은 ‘불편하지 않다/비치지 않는다/고급스럽지 않다’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sup>7)</sup>

또 (1ㄴ)의 ‘말다’와 관련하여 ‘말다’는 부정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보조동사 구문 ‘-(지) 말다’ 외에도 ‘-고 말다’(‘성공하고 말겠다’)의 구성이 있어서, 항상 ‘-지 {않다/못하다}’의 구성으로 쓰이는 부정의 보조동사 ‘않다’나 ‘못하다’와는 달리 복잡한 사용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말-’을 포함한 2형태 연쇄 바이그람(bigram) 추출을 통해 ‘-지 말-’만으로 구성된 보조동사 구성만을 포함하기로 하는데 이는 장형 부정의 보조용언 구성 ‘-지 {못하다/않다}’와 평행한 처리 방식을 택한 것이다.<sup>8)</sup>

6) ‘아니다’, ‘없다’의 빈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ㄴ 것이 아니-’, ‘-ㄴ 수 없-’의 연쇄는 주로 절 단위로 실현되는 선행 명제에 대한 부정을 포함하며 빈도뿐만 아니라 사용 맥락이 넓고 부정의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모르다’ 등의 타 어휘 부정과는 차별되는 중요성을 가진다. ‘아니다’가 ‘-ㄴ 것이 아니-’로 쓰여 선행절을 부정하는 경우는 전체 ‘아니다’의 25% 가량이며(남길임 2010:62), ‘못’ 부정과 기능적 면에서 유사한 ‘-ㄴ 수 없-’은 장르에 따라서 ‘못’이나 ‘못하-’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7) 이와 같이 부정소를 중심으로 부정의 기능 범주를 제한할 때 더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정곤(1998), 구중남(2011) 등에서 논의되어 온, 부정 극어를 허가하는 ‘-기 어렵다, -기 힘들다, 거절하다’ 등이나 의미 자체에서 부정의 함축하는 ‘덜 예쁘다’의 ‘덜’, ‘일을 그만두다’의 ‘그만두다’와 같은 부류이다. 남지순(2012)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

8) 실제로 ‘말다’는 다의어 동사와 보조동사를 모두 합해도 전체 부정의 빈도에서 4% 미만이며 서 실제로 양적 분석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을 산출할 때의 계량 단위이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계량의 단위를 ‘문장’으로 하느냐, ‘절’로 하느냐에 따라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은 다른 수치로 나타난다.

<표 1> 분석 단위 기준 설정에 따른 부정 표현의 비율 변화  
(부정의 수/문장·절 단위의 수)

		문장 기준	절 기준
㉠	중소기업은 투자를 못하고, 대기업은 투자를 <u>안</u> 한다.	2/1	2/2
㉡	내가 거짓말을 못해서 <u>안</u> 하는 게 <u>아니다</u> .	3/1	3/3
㉢	살이 찌는 것은 못 먹어서가 <u>아니라</u>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3/1	3/5

본 연구에서는 ‘절 기준’을 적용하여 부정의 분포를 분석하기로 하는데, 이는 위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소가 절 단위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과 같은 경우, 문장 단위로 계수할 경우, 하나의 문장에 세 개의 부정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을 산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절 기준으로 계수할 경우, ㉢은 두 개의 긍정절과 세 개의 부정절로 분석될 수 있고, 이보다 더 많은 절로 구성된 복합절 문장에서도 긍정절과 부정절의 비율을 정확하게 계수할 수 있다.<sup>9)</sup> 무엇보다 문장의 경계가 모호한 구어의 분석에서 절 단위는 문장 단위에 비해 훨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 각 말뭉치의 전체 절의 개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동사(VV), 형용사(VA), 긍정지정사(VCP), 부정지정사(VCN)를 합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조용언(VX)의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할 경우, ‘본용언+보조용언’ 구성은 하나의 절로 계수되며, 이중 동사 구성은 두 개의 절로 계수된다.

## 2.2 말뭉치의 구성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21세기 세종계획 균형 말뭉치의 구어 문어 형태 분

9) 기능문법에서 단일 절(single clause)은 정보의 기본 단위로 논의되어 왔는데, 말뭉치를 분석해 보면 구어의 경우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절부터 시작해서 20개 이상의 절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석 말뭉치와 온라인 상품평(product review)을 말뭉치로 구축하여 형태 분석한 ‘상품평 말뭉치’ 약 4백만 어절이다.<sup>10)</sup> 상품평 말뭉치의 경우 웹크롤링을 통해 수집한 후,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낱짜, 상품코드, 상품판매 타이틀을 제외하고 상품평 텍스트만을 수집하여 원시 말뭉치와 형태 분석 말뭉치로 가공하였다. 형태 분석 말뭉치는 띄어쓰기 등 전처리, 유태거(U-tagger)를 통한 형태 분석, 후처리 등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전체 말뭉치의 구성과 상품평의 예시를 보이면 <표2>, <그림1>과 같다.

<표 2> 대상 말뭉치 구성

	내용	어절 수	절/문장 수
세종 구어	일상대화, 학술 강연	805,646	238,163/216,720
세종 문어	소설, 신문, 교양서	10,066,722	3,339,240/828,486
상품평	의류 쇼핑물 상품평	4,121,045	1,924,695/614,192

1 검정색은 물이 좀 많이 빠지기는 하지만 저렴하게 잘 산 거 같아요 ↓  
 2 편하고 좋아요 ↓  
 3 허벅지~바지가 너무 넉넉한 걸 두 번 봤네요~그래도 작아서 못입는 것 보단 나은데~ 바지 자꾸가 좀 불편하고 바느질은 보통이구요 몸이 슬림했다면 핏이 살 텐데ㅜㅜ 그냥 입어용 사이즈 넉넉하니 좋네요 당에는 좀더 작게 구입해 봐야 겠어용 수고하세요~ ↓  
 4 재질이 느낌이 좀~부드러워요. 그래서인지 구멍이 잘가요!!! 웃은 편해요. 아무리 이쁜 옷도 몸이 받쳐줘야 이쁜듯~ㅠㅠ그래도 편하 잘~입을게요 ↓  
 5 먼지작랄볼네요 ↓  
 6 가격대비 만족합니다 ↓  
 7 길이가 길어 조아요 ↓  
 8 저렴하게 잘 샀어요 ↓  
 9 좋아요. 맘에 들어요. 배송도 빠르고요. 화면하고 똑같네요. ↓  
 10 좋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배송도 빠르고요. 화면하고 똑같네요. ↓  
 11 배송도 좋고 청바지도 좋고. 모두 좋아요 ↓  
 12 스키니 예쁘게 입을게요. ↓  
 13 단면 오차범위를~해서 구매한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네요?ㅠㅠ근데 활동성에 좋게 스판은 아주 좋아요!~\*)빠게 구매하고 수선집가서 수선비로 홀라당 발라당 갔네요~ 교환하는 것 보다는 그냥 그게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아시는분 집가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ㅠㅠ+이미지에 기재된 단면체크~ 허리 39/ 엉덩이 47/ 허벅지 24. 5 / 밑단 16지금 보는 단면은 수선후예요^^단면 허리예요~ 36으로 3cm 줄었어요~ 엉덩이는 42. 5~허벅지는 23. 5 밑단은 14. 5~^^)비록 사이즈 판단 미스로~였지만 마음에 들어요 스판이 아주 좋아요~^^배송도 만족이구요~ 물품도 만족이예요^^ ↓  
 14 색감도 딱 예쁘고 워싱 덧땀까지 예뻐용 ↓

<그림 1> 상품평 원시 말뭉치 청바지

10) 상품평 말뭉치는 2016년 2월 13일부터 2016년 2월 16일까지 <네이버 지식쇼핑> (<http://pc.shopping2.naver.com/>)에서 ‘남방/블라우스, 니트/스웨터, 정장, 청바지, 원피스’의 하위 상품평을 웹크롤링하여 수집한 것이다.



<표2>는 각 말뭉치의 구성과 어절 수와 함께 절 단위와 문장의 수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절의 수는 보조용언을 제외한 용언의 합이며, 문장의 수는 구어의 문장 구획 태그(S태그), 문어의 문장 부호를 기준으로 한 구획(P태그)의 합을 나타낸다. 또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새로이 도입한 상품평 말뭉치의 경우, 주로 한 문장 또는 한 문단 정도의 길이로 구성되어 텍스트 구조가 단순한 편이며, 내용 역시 상품이나 서비스, 배송 등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어서 텍스트의 기능도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 주석 말뭉치를 대상으로 부정의 형태를 계수하되, 각 부정의 형태가 나타나는 고빈도 구문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둘 이상의 단어의 연속된 연쇄(Stubbs and Bath 2003:62)’를 추출하는 엔그램(n-gram) 추출 방법론을 활용하기로 한다. 또 엔그램을 응용하여 고빈도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론으로 형태의 연쇄 대신 품사의 연쇄인 POS그램(Part of speech gram)이나 슬롯을 포함한 특정 문법 표지의 연쇄를 추출하는 피프레임(p-frame, phrase frame)등을 함께 활용할 것이다.<sup>11)</sup>

### 3. 사용역에 따른 부정의 비율

#### 3.1 부정절의 분포와 긍정 대 부정의 비율

위 2.1에 따라 부정의 요소를 추출하고, 절 단위를 중심으로 부정절의 비율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부정절의 비율

	전체 절의 수	부정절의 수	부정절/절(%)
세종 구어	238,163	20,793	8.73
세종 문어	3,339,240	221,175	6.62
상품평	1,924,695	89,238	4.64

11) 엔그램, POS 그램, 피프레임 등의 추출은 KNUgram 추출기를 활용하였다. KNUgram은 한국어 형태 분석 말뭉치에 포함된 원어절, 분석 형태 정보, 품사 주석 정보 등을 대상으로 대상 단위의 연속 및 불연속적 연쇄 항목의 유형과 빈도 추출, 용례 색인 등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부정절의 비율은 ‘부정절의 수/전체절의 수’로 산출되는데, ‘구어(8.73%)>문어(6.62%)>상품평(4.6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정절이 장르를 막론하고 전체 절에서 10% 미만임을, 동시에 긍정절이 90% 이상임을 의미한다. 절 단위가 정보 전달의 기본 단위라고 전제할 경우(Chafe 1994),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의사소통에서도 부정 구문은 긍정과 부정의 편향 체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영어에서의 부정절의 비중이 10%라는 Halliday & James(1993)의 분석, Givón(1993)의 5%(학술논문), 12%(소설) 등과 비교될 수 있는데 대체로 언어를 막론하고 부정은 긍정 명제에 부정소를 실현함으로써 유효적인 기능을 하는 범주인 것만은 분명하다.

전체 절에서 부정절의 비중을 분석한 본 연구의 접근 방식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말뭉치 기반 연구에서 어휘나 구문의 비율이 주로 어절에 대한 비율로 산출된 것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전체 어절에서 부정소의 비율(부정절의 수/총 ‘어절’ 수)을 분석할 경우 구어 2.58%, 문어 2.19%, 상품평 2.17%으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수치만으로는 정보 전달의 단위로서 부정절이 긍정절과 어떤 비중으로 실현되는지는 알 수 없다. 반면 <표3>과 같이 전체 절을 모수로 할 경우, 긍정절과 부정절의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사용역에 따른 긍정절과 대비되는 부정절의 기능 부담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3.2 부정의 분포에 대한 해석: 사용역과 ‘부정’의 기능

위 3.1에서 부정의 비율이 ‘구어>문어>상품평’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결국 각 사용역에서의 ‘부정’의 기능이나 사용역의 특성으로 인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특정 장르와 문법 범주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려는 시도는 기능문법이나 말뭉치언어학의 주요 연구 경향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여기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다음 두 가지의 전제를 기반으로 ‘부정’의 비율과 사용역의 상관관계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첫째, 범언어적 범주인 ‘부정’은 ‘긍정의 반대’라는 논리적, 명제적 기능 외에도 다양한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사용되며, 이러한 기능은 체계 기능 문법의 메타 기능(meta function)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sup>12)</sup>, 둘째, 이러한 부정의 기능은 사용역의 기능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사용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고빈도 구문을 비롯한 ‘빈도’의 고찰을 통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 전제는 말뭉치언어학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우선, 첫 번째 전제를 한국어 부정의 범주에 적용할 경우, 부정은 기능문법의 메타 기능(meta function)의 분류 체계 즉, 개념적 기능(ideational function)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 텍스트적 기능(textual function)에도 기여한다. 즉, 부정은 ‘긍정의 반대’라는 논리적 기능을 실현하기도 하지만(개념적 기능), 화자와 청자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알리거나 묻거나 요구, 요청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며(대인관계적 기능), 담화의 연쇄를 구성하기 위해 흐름을 조직하고 응집성과 연속성을 창조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텍스트적 기능)<sup>13)</sup>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부정의 표현들은 이러한 메타 기능을 실현한다.

(5) ㄱ. 시집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는 것이다.

ㄴ. 더 이상은 못 먹겠다.

ㄷ. 나는 친구가 없다/나는 학생이 아니다.

(6) ㄱ. 그만하기 다행이지, 안 그래?(그렇지?)

ㄴ. 혹시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들어보셨어요?)

ㄷ. 썩 나가지 못하겠나?(나가라)

ㄹ. 가서 말해 볼 수 없겠나?(있겠나?)

(7) ㄱ. 앓을 수 없다/아닐 수 없다/없지 아니하다/-어도 과연이 아니다/다름 아닌

12) Halliday & Mathiesson(2014:30)에서는 왜 하필 ‘기능’과 같은 단순한 언어를 쓰지 않고 보편적인 용어가 아닌 ‘메타 기능(meta function)’이라는 복잡한 술어를 택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인 언어의 ‘기능(function)’은 단순히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이나 방법을 의미하며 언어 자체에 대한 분석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데 비해, ‘메타 기능(function)’은 ‘기능’이 언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언어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용어라는 점에서 변별된다. 기능문법에서의 메타 기능의 유형은 말뭉치를 활용한 여러 연구에서 적용된 바 있으며,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재해석되기도 했다. 각 메타 기능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Halliday & Mathiesson(1999/2014) 등을 참조.

13) 이 각각의 기능은 Halliday & Mathiesson(1999:528)에서 ‘반영(reflection)’으로서의 언어, ‘행위(action)’로서의 언어, ‘정보(information)’로서의 언어(1999:528)로서 해석되기도 했다.

- ㄴ. 아니 그제 아니라/그런 게 아니라/이제 아니라  
 ㄷ. -ㄹ 뿐만 아니라

(5)는 부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안’, ‘못’, ‘없다/아니다’는 모두 화자가 긍정의 반대로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 현상, 판단, 추상적 개념 등을 언어에 반영한 것이다. 즉 이때의 부정은 ‘개념적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6)은 (5)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즉 부정 표현이 주로 의문문으로 실현되어서 청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6ㄱ),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 묻거나(6ㄴ), 청자에게 요구 또는 요청하는(6ㄷ, 6ㄸ)’ 맥락에서 사용된 예로, 이때의 부정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거나 청자에 대한 어떤 요구, 요청, 금지 등의 행위를 한다는 ‘대인관계적 기능’을 수행한다.<sup>14)</sup> 이들 예에서 부정은 긍정의 반대라는 개념적 의미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은 서법이나 종결어미에 다소 변화를 준 긍정문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들은 특정 맥락에서 부정의 실현이 ‘긍정의 반대’라는 논리나 의미의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화용적 기능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한편 엔그램(ngram)으로 추출된 부정 구문에서 고빈도로 나타나는 (7)의 예는 이중 부정이나 관습적인 구 구성을 통해 강조의 기능을 수행하거나(7ㄱ), 명제를 연결하는 경우(7ㄴ, 7ㄷ)로 텍스트나 담화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구조화하고 체계화하여 응집성과 연속성을 부여하는 ‘텍스트적 기능’을 수행한다. (7ㄱ)은 주로 문어에서, (7ㄴ)은 주로 구어에서, (7ㄷ)은 문어, 구어, 상품평 모두에서 고빈도로 나타났다.<sup>15)</sup>

이러한 부정의 기능에 대한 재분류 및 고찰은 물론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부정’이 긍정에 비해 부차적이거나 대칭적인 개념이 아니며, ‘거절, 반박, 거짓말, 반어, 금지, 강조’ 등의 다양한 담화 기능을 담당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Strawson 1952, Horn 1991, Israel 2004), 김동식(1981), 장경희(1982/1999) 등을 비롯한 한국어 부정문의 담화 화용적 연구에서도 예시되어 왔다. 이들 논의에서 부정이 ‘확인, 강조, 완곡’ 등의 다양한 의미 기

14) 의문문에 나타난 부정의 기능에 대해서는 장경희(1982/1999)에서 상세히 논의된 바 있다.

15) 이러한 엔그램 결과물의 일부는 <첨부1>에 ‘아니다’를 중심으로 예시되어 있다.

능을 실현한다는 주장은 화용적, 텍스트적 맥락에서 ‘부정’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메타 기능을 통한 해석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 기능으로 부정을 논의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은, 부정의 다양한 기능을 언어 자체의 상위 기능으로 범주화함으로써, 사용역의 기능과 부정의 비율의 차이를 좀더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용역에 따른 부정의 비율은 사용역의 의사소통적 기능과 부정의 메타 기능과의 상관관계로부터 논의될 수 있다.

‘구어’에서 부정의 빈도가 높은 것은 구어에서의 부정의 기능이 문어나 상품평에서보다 훨씬 풍부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즉, 구어는 문어에 비해 청자 간의 상호성과 현장성이 높고, 청자에 대한 요구 등 청자를 고려한 다양한 담화 상황이 전제된다. 따라서 유표적인 범주로서 부정은 이러한 담화 상황에서 훨씬 더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더 자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남길임(2010), 한송화(2015)에서는 구어와 관련한 부정문의 현상을 일부 논의하고 있는데, 전자에서는 긍정 명제의 반대로 볼 수 없는 ‘자기 수정, 발화 계획 변경, 상대방 발화의 부정’ 등의 다양한 기능이 구어 부정문에서 더 자주 나타남을, 후자에서는 요구, 요청, 완곡 기능이나 진술 강화 기능 등이 구어 부정문의 주요 기능임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기능은 주로 부정의 대인관계적 기능으로, 화청자의 실시간적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는 구어에서 대인관계적 기능이 다른 사용역에서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과 상관성이 있다.<sup>16)</sup> 결과적 수치만을 놓고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Givón(1993)에서 소설(12%)이 학술논문(5%)에 비해 부정문의 비중이 2배 이상이 된다는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물론 Givón(1993)에서의 영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포함하여 실제 한국어에서 구어 부정문이 문어 부정문에 비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을 어느 정도 많이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충분한 수의 용례의 분석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sup>17)</sup>

16) ‘구어’와 ‘문어’를 구분에서 ‘문어’의 텍스트 구성에는 상당히 구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어만큼은 아니겠지만 문어에서도 전형적인 구어적 상황을 나타내는 소설의 대화 지문이 존재하고, 이러한 특성은 이미 문어 부정문의 예문을 통해 입증된다. 이로 인해, 문어 부정절에는 구어적 속성의 부정문도 꽤 빈번하게 관찰된다.

17) 본 연구에서는 부정의 형태 빈도를 주된 대상으로 논의하며, 부정이 기능 분석을 포함한 계

한편 부정절의 비중이 각각 6.62%, 4.64%로 구어에 비해 낮은 비중을 보인 문어와 상품평의 차이 역시 각 사용역의 기능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7ㄱ)은 주로 문어에서 고빈도로 나타나는 부정의 이중 부정 또는 강조 구문으로 문어의 문체적 특성을 반영하며, (7ㄴ)은 구어에서 (7ㄷ)만이 모든 사용역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구문이다. 상품평의 경우는 한 문장에서 한 문단 정도 길이의 간단한 텍스트로 구성되며, ‘특정 상품에 대한 개별 소비자의 평가’, ‘평가에 대한 공유’라는 비교적 단순한 텍스트 기능을 가진다. 상품평의 부정은 위 (6)의 구어에서의 청자에 대한 고려, (7ㄱ)의 문어의 문체적 특성은 매우 드물며 대체로 ‘긍정의 반대’를 나타내는 개념적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가 가장 많은 듯하다.<sup>18)</sup>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상품평에서는 문어나 구어에 비해 단순 부정의 ‘안’ 부정의 비율이 높으며, 주관 형용사와 함께 쓰여 ‘긍정/부정’을 나타내거나(나쁘지 않다, 좋지 않다), 성상 형용사 구성에서 상품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두껍지 않다, 작지도 크지도 않다) 등 긍정의 반대의 의미를 실현하는 경우가 많다.<sup>19)</sup>

요컨대, 계량적 관점에서 부정의 비율을 도출한 본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는 없었지만, 부정의 비율뿐만 아니라 부정의 기능 역시 세 사용역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개념적 기능은 사용역의 유형과 무관하게 부정의 기본 의미를 나타내지만, 대인관계적 기능은 주로 구어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되 문어의 경우 주로 소설의 대화체 용례에 집중되어 나타날 것이다. 텍스트적 기능은 일정 길이 이상의 텍스트를 구조화하는 문어와 구어에 집중된 기능으로 상품평에서는 매우 드문데, 이는 상품평

---

량적 분석은 별도의 연구를 계획 중에 있다. 부정의 메타 기능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나타나는지는 향후의 과제로, 단형부정과 장형부정, 서법, 종결어미 등의 요인을 고려한 질적 분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18) 각 사용역에 따른 부정의 의미 기능의 다양성과 경향성은 세 가지 말뭉치에 나타난 부정 구문 전반의 의미 기능을 분류하는 질적 연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을 위주로 논의하며, 이러한 의미 기능의 장르별 분포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지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 19) 이 외에도 ‘과하지 않다, 달라붙지 않다, 두껍지 않다, 화려하지 않다, 여성스럽지 않다, 고급스럽지 않다, 심심하지 않다, 부담스럽지 않다, 타이트하지 않다, 부드럽지 않다’ 등이 고빈도로 출현했으며, 배송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동사류(검수하지 않다, 확인하지 않다, 전화를 받지 않다)도 고빈도로 출현하였다.

이 단일 문장이나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구성되며, 상품에 대한 평가라는 비교적 제한된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 본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계량적 분석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부정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 (8) ㄱ. 각 사용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부정의 메타 기능의 빈도와 분포  
 ㄴ. 대인관계적 기능의 대표 유형으로서 부정의문문의 사용역별 유형과 기능, 빈도  
 ㄷ. 텍스트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정 패턴의 사용역별 유형과 기능, 빈도  
 ㄹ. 학술논문, 신문, 자유대화 등 단일 장르를 대상으로 한 위 (ㄱ)~(ㄷ) 각각에 대한 연구

#### 4. 사용역별 부정 형태의 분포

여기서는 문법 개론서에서 한국어 부정법의 기본 유형으로 논의되어 온, 문법부정과 어휘부정, ‘안’ 부정과 ‘못’ 부정, 장형부정 단형부정 등의 각 사용역별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부정문에 대한 이러한 구분 범주는 대부분의 문법 개론서에서 한국어 부정 구문을 대표하는 유형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각각의 비중이 사용역에 따라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듯하다. 한국어 ‘부정’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정 형태나 구문의 유형 분류를 넘어서서 어떤 형태나 구문이 더 자주 쓰이거나 덜 쓰이는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정 형태나 구문이 특정 장르나 사용역에서 더 자주 사용된다는 것은 그 장르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특히 부정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과 텍스트 기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아래 <표4-1>, <표4-2>, <표4-3>은 각각은 구어, 문어, 상품평 각각의 부정 형태의 빈도이다. 각각의 수치는 절대빈도와 함께 말뭉치 양의 차이를 고려하여 100만 어절로 표준화한 상대빈도와 각 형태가 해당 말뭉치의 전체 부정 표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백분율’로 함께 제시하였다. 또 ‘안’ 부정과 ‘못’, ‘말다’ 부정은 문법 부정으로, ‘없다’와 ‘아니다’는 어휘 부정으로 구분하였다.

<표 4-1> 구어의 부정 형태 빈도

부정형태	절대빈도	상대빈도	백분율(%)
안(아니)	6,756	8,386	32.5
않-(아니하-)	2,585	3,208	12.3
못	1,910	2,371	9.2
못하-	356	442	1.7
말-	557	691	2.7
문법부정 합계	12,164	15,098	58.4
없-	4,121	5,115	19.8
아니-	4,508	5,596	21.7
어휘부정 합계	8,629	10,711	41.6
총계	20,793	25,809	100

<표 4-2> 문어의 부정 형태 빈도

부정형태	절대빈도	상대빈도	백분율(%)
안(아니)	11,076	1,100	5.1
않-(아니하-)	67,386	6,694	30.4
못	5,199	516	2.4
못하-	18,378	1,826	8.3
말-	8,511	845	3.8
문법부정 합계	110,550	10,981	50
없-	65,763	6,533	29.7
아니-	44,862	4,456	20.3
어휘부정 합계	110,625	10,989	50
총계	221,175	21,970	100

<표 4-3> 상품평의 부정 형태 빈도

부정형태	절대빈도	상대빈도	백분율(%)
안(아니)	16,657	4,042	18.6
않-(아니하-)	30,728	7,456	34.4
못	4,771	1,158	5.3
못하-	1,267	307	1.4
말-	1,289	313	1.4
문법 부정	54,712	13,276	61.1
없-	18,680	4,533	20.9
아니-	15,846	3,845	17.9
어휘 부정	34,526	8,378	38.9
총계	89,238	21,674	100



위 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한국어 부정절의 계량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문법 부정과 어휘 부정의 비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안’ 부정과 ‘못’ 부정으로 대표되는 문법 부정이 각 사용역에서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어휘 부정의 빈도도 구어(41.6%), 문어(50%), 상품평(38.9%)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어휘 부정 형용사 ‘없다’와 ‘아니다’가 구성하는 고빈도 엔그램의 유형과 그 기능적 특성이다. 아래 (9), (10)은 문어의 ‘없다’와 ‘아니다’의 고빈도 엔그램(3-gram, 4-gram)과 용례를 보인 것으로, 최고 빈도 엔그램의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의존명사 구성이 차지한다.

- (9) ㄱ. ‘없다’: -ㄹ 수(\*) 없-, -ㄴ 적(\*) 없-, -ㄹ 것(\*) 없-, -ㄹ 리(\*) 없- 등  
 ㄴ. ‘아니다’: -ㄴ 것(\*) 아니-, -ㄹ 거(\*) 아니-, -ㄴ 편(\*) 아니-, -ㄹ 바(\*) 아니- 등
- (10) ㄱ. 그 후 죽음에 대한 허무감을 감당할 수 없었다.(감당하지 못했다)  
 ㄴ. 살아 있는 매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보지 못했다)  
 ㄷ. 통계 자료 하나 제대로 나온 것이 없었다.(나오지 않았다)  
 ㄹ. 이 청년이 창을 어떻게 쓰는지 알 리가 없지요.(알지 못하다)  
 ㅁ. 이 실존적인 고통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달라지지 않았다)
- (11) ㄱ. 영어로 편지를 쓴다지만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었다.(대단하지 않았다)  
 ㄴ. 그래도 산세가 험한 편이 아니었다.(험하지 않았다)  
 ㄷ. 그것은 무엇보다 형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원하지 않은 것이었다)  
 ㄹ.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시위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해야 하지 않아요)

어휘 부정의 ‘없다/아니다’는 ‘N1이 없다/N1이 N2가 아니다’의 문형으로 실현되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일반명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미가 비어 있는 의존명사 구성을 통해 부정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다. 즉, (10), (11)의 의존명사 구성은 적어도 진위의 측면에서 괄호 안의 ‘안/못 부정’과 등가의 의미를 가진다. 더 나아가 의존명사 구성에는 들어가지만 고빈도 일반명사와 함께 쓰인 ‘-ㄴ/ㄹ {필요/일/이유/말/도리...}가 없-’나 ‘-ㄴ/ㄹ {일/문제/때/말/형

편...}이 아니.’ 등의 구성 역시 고빈도 구문으로 실현되며 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긍정과 부정의 경향성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문법 부정뿐만 아니라 ‘없다’, ‘아니다’의 고빈도 패턴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없다’, ‘아니다’ 구문의 빈도는 <표4-2>의 빈도와 비교할 경우 ‘못’ 부정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로 나타나며 한국어 화자가 ‘부정’을 위해서 문법 부정만큼 자주 사용하는 형태이다.

‘없다. 아니다’의 문법 부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어를 중심으로 이러한 의존명사 구성을 피프레이밍으로 추출한 결과는 <표5>로 요약될 수 있으며<sup>20)</sup>, ‘없다’의 경우 49%가, ‘아니다’의 31%가 의존명사 구성으로 사용되었다.

<표 5> 문어 ‘없다/아니다’의 의존명사 구성 비율

	형태 빈도	의존명사 구성	의존명사구성/형태빈도(%)
‘없다’	65,763	32,513	49.4%
‘아니다’	44,862	13,949	31%

다음으로, 위 <표 4-1>, <표 4-2>, <표 4-3>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전체 부정의 형태 중에서 ‘안’ 부정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안’ 부정은 한국어 부정법을 대표하는 또 다른 유형인 ‘못’ 부정에 비해서도 빈도의 측면에서 월등한 우위를 보이며, 세 사용역에서 모두에서 최상위 빈도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안’ 부정은 한국어를 대표하는 부정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볼 때, ‘안’과 ‘않-’을 합친 ‘안’ 부정은 구어(44.5%), 문어(35%), 상품평(53%)으로 실현되고, ‘못’과 ‘못하-’의 ‘못’ 부정은 구어(10.9%), 문어(10.7%), 상품평(6.7%)이므로, 각 사용역 내에서 ‘안’ 부정이 ‘못’ 부정의 3배에서 8배 정도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역별로 이러한 빈도의 차이를 보이는 주된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동사,

20) 이들은 ‘없다’, ‘아니다’ 각각 ‘관형사형어미(/ETM) 의존명사(/NNB)+{∅ 또는 조사류(/J\*)} 없(/VA), ‘관형사형어미(/ETM) 의존명사(/NNB)+{∅ 또는 조사류(/J\*)} 아니(/VCN)’의 연쇄로 추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형태의 연쇄를 추출하는 엔그램의 기본 방법론을 품사 연쇄에 적용한 피프레이밍(p-frame, phrase-frame)을 활용하였다. <첨부1>에서는 각 사용역에서 나타난 ‘아니다’의 엔그램(형태 단위 6-gram) 최고빈도 30위까지의 예를 보였는데, 상품평을 제외한 문어, 구어 각각에서 ‘아니다’는 의존명사 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용사 모두와 자유롭게 결합하는 ‘안’ 부정의 분포가 주로 동사와 결합하는 ‘못’ 부정보다 광범위하다는 것, 단순 부정이나 의도 부정이 능력부정에 비해 포괄하는 의미 영역이 넓다는 것 등에서 찾을 수 있지만, 능력 부정의 의미 기능을 ‘못’ 부정과 ‘-ㄹ 수 없-’이 함께 담당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sup>21)</sup> 그러나 이에 대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용역의 의사소통 목적과 방식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안’ 부정과 ‘못’ 부정의 차이가 무려 8배 이상인 상품평의 경우, ‘평가’와 관련한 형용사 즉, 주관 형용사나 성상 형용사의 사용 비율이 높아서 단순부정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된다. ‘-지 않-’에서 ‘않-’의 선행 요소로 동사보다 형용사가 1.5배 수준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는 문어나 구어의 ‘-지 않-’ 구성에서 각 동사가 형용사보다 각각 3.5배, 1.5배 많이 쓰이는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다. 아래 예문은 각각 문어, 구어, 상품평 각각에 나타난 빈도 10위까지의 용언을 빈도 순위대로 보인 것으로, 상품평의 경우 ‘보이다/붙다’를 제외하면 모두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ㄱ. {하지/보이지/되지/있지/지지/그렇지/지나지/있지/없지/하지(보조)⋯}  
 않다(문어)  
 ㄴ. {되지/그렇지/있지/하지/좋지/있지/같지/지지/싫지/하지(보조)/그러지⋯}  
 않다(구어)  
 ㄷ. {짧지/보이지/나쁘지/두껍지/불지/같지/비치지/얇지/불편하지/길지⋯}  
 않다(상품평)

21) 남길임(2015:101)에 의하면, ‘바위를 들 수 없다/바위를 못 들다/바위를 들지 못하다’와 같은 능력 부정을 나타내는 형태에서, ‘-ㄹ 수 없-’이 능력 부정의 기능을 부담하는 비율은 각각 문어와 구어에서 52.2%, 23.5%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능력 부정의 부정소 ‘못’, ‘못하-’와 ‘-ㄹ 수 없-’의 총합을 모수로 했을 때 ‘-ㄹ 수 없-’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못, 못하-, -ㄹ 수(#) 없-’의 기능부담량\_백분율>

능력부정의 형태	세종 문어	세종 구어
못	11.8%	68.3%
못하-	36%	8.2%
-ㄹ 수(#) 없-	52.2%	23.5%
총계	100%	100%

부정의 유형별 빈도나 기능은 사용역에 따라 상당히 달리 나타나며, 이는 사용역의 특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부정의 해석은 사용역, 장르를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상품평 텍스트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감성분석의 경우, 부정의 해석에 있어서 ‘안’ 부정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잘 알려지고 일부 논의되기도 했던 장형부정과 단형부정의 분포의 문제이다. 송현주(2015), 한송화(2015)에서 각각 ‘안’ 부정을 대상으로 일부 장르에 대해 논의된 바와 같이 바와 같이 ‘안’ 부정과 ‘못’ 부정의 장형부정과 단형부정은 사용역에 따라 상당한 빈도의 차이로 실현된다. 전반적으로 장형부정은 문어에서, 단형부정은 구어에서 더 많은 빈도로 실현되지만 ‘안’ 부정과 ‘못’ 부정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으며, 문어에서는 ‘안’ 부정에서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며 구어에서는 ‘못’ 부정에서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매우 특이한 사실은, 상품평의 경우 ‘못’ 부정은 단형부정을 선호하고 ‘안’ 부정은 장형부정을 선호하는 특수한 분포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송현주(2011)에서 논의된 바 있듯이, 장형부정과 단형부정의 기능이 각기 다르다는 것, ‘안’ 부정이나 ‘못’ 부정이 가지는 장형부정과 단형부정의 기능, 상품평의 특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22)</sup> 장형부정과 단형부정은 진위의 측면에서 같은 부정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담화상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사용역의 특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개괄적 빈도만을 살펴보았지만 향후 용례 분석을 통해 아래의 주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 ㄱ. 사용역에 따른 장형부정과 단형부정의 기능 차이

- ㄴ. 사용역에 따라 장형부정, 단형부정이 자주 결합하는 어휘와 품사의 차이
- ㄷ. 학술논문, 신문, 상품평 등 단일 장르를 대상으로 한 위 (ㄱ),(ㄴ) 각각에 대한 연구

22) 송현주(2011)에서는 통사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두 구문은 의미적이든 화용적이든 반드시 구분된다는 ‘비동의성의 원리’(손영숙·정주리 2004:126)를 근거로 구어 자유대화에서 ‘안’ 부정의 장형과 단형이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짐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형과 단형이 취하는 본동사의 어휘적 선호가 각기 다르고, 장형부정의 경우는 단형에 비해 청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묻는 기능을 더 빈번하게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 5. 결론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르며, 그들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더욱 다르다.(Halliday, McIntosh & Strevnes 1964)<sup>23)</sup> 이러한 관점에서 부정의 범주를 고찰할 때, 학교문법에서의 부정의 범주는 균등하게 실현되지 않고, 균질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며, 사용역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른 변이를 보일 것임에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의 범주를 실제 용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 위해, 말뭉치에 나타난 부정소와 어휘부정의 대표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절 단위를 대상으로 부정 표현의 빈도와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문어, 구어, 상품평 각각에 나타나는 긍정 대 부정의 기능 부담량을 밝히고, 부정의 범주와 유형에 따른 사용 양상 전반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과 남은 과제 및 쟁점을 결론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은 형태의 단위라기보다는 ‘기능’의 단위로,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을 비롯한 양적 분석은 단순한 어절 단위가 기준이 되기보다는 ‘절’이나 ‘문장’ 등 의사소통의 단위가 기준이 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고, 이를 위해 전체 절에서 부정절의 비중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부정절의 비중은 구어(8.73%)>문어(6.62%)>상품평(4.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정의 긍정에 대한 비중이 함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ㄱ) 한국어 부정의 범주 역시 5:5의 등위 체계가 아닌 9:1의 편향 체계에 있으며, 부정의 범주는 유효적이라는 기능문법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고, ㄴ) 사용역에 따른 부정의 비중의 차이가 각 사용역의 의사소통 기능이나 양상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지면의 한계로 인해 부정에 대한 전체 용례를 분석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용례를 대상으로 한 부정의 메타 기능 분석을 통해 부정의 기능과 사용역의 특성이 일정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논의하였다.

셋째, 기존 문법에서 논의되어 온 어휘부정과 문법부정, 장형부정과 단형부정, ‘안’ 부정과 ‘못’ 부정의 사용역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ㄱ) ‘안’

23) Halliday and Mattiessen(2014:51) 재인용

부정의 비중이 ‘못’ 부정의 3-8배에 해당한다는 것, ㄴ) ‘없다, 아니다’의 어휘 부정이 예상보다 높은 비중으로 쓰이므로 한국어 부정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휘부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ㄷ) 장형 부정과 단형 부정의 경향성 역시 부정과 사용역의 관계에 대해 일정 부분 함의를 가진다는 점 등을 논의하였다.

말뭉치언어학의 문법에 대한 시각 중 가장 뚜렷한 경향은 문법의 기술에 있어서 정도성을 인정하고, ‘장르’, ‘사용역’의 변수를 고려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기준으로 ‘빈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빈도 패턴과 빈도 분석에 집중하여 대략적인 빈도의 경향성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이중 부정의 비율이나 부정이 아닌 부정의 비율 등을 비롯한 좀더 세밀한 사례의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 부정의 메타 기능에 대한 전수 분석을 하지 못했고 메타 기능과 사용역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이 몇몇 용례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의 주된 이유는 의미나 기능에 대한 분석이 수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로 인한 것이다. 향후 특정 장르의 전수 조사를 통해 부정의 메타 기능을 분석하고 각 기능의 하위 유형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빈도’와 ‘장르’의 상관성에 대한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범모(1999),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특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구종남(2011), 「국어의 부정 극어 허가자와 허가 양상」, 『한민족어문학』 59, 한민족어문학회, 549~583.  
 구현정(2008), 「“아니,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부정 표현의 문법화」, 『담화와 인지』 제 15권 3호, 1-26.  
 남길임(2006), 「‘아니다’의 패턴 연구: 말뭉치 문맥색인을 활용하여」, 『어문론총』 제 44호, 한국문학언어학회, 1-33.  
 남길임(2010), 「‘아니다’의 사용 패턴과 부정의 의미」, 『한국어의미학』 33, 한국어 의미학회, 41~65.  
 남길임(2015), 「‘-르 수 없-’의 의미와 담화 기능에 대한 말뭉치언어학적 분석」, 『텍스

- 트언어학』38, 93-120.
- 남지순(2012). 「오피니언 극성을 전환하는 한국어 부정표현 자동 인식을 위한 연구」, 『언어와 언어학』 제57집, 61-94
- 김동식(1981). 「부정 아닌 부정」, 『언어』 6-2, 한국언어학회, 99~116.
- 손영숙·정주리 역(2004). 『구문문법』, 한국문화사.
- 송창선(2013). 「현대국어 “말다”의 의미 분석」, 『국어교육연구』 52, 국어교육학회, 263~284.
- 송현주(2011). 「국어 구조와 의미간의 동기화 연구」,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시정곤(1998). 「국어의 부정어와 어휘 분해」, 『한국어학』 7-1, 한국어학회, 193~225.
- 우형식(2008). 「“없다”의 용법과 부정 표현의 양상」, 『배달말』 43, 배달말학회, 179~209.
- 장경희(1982). 「국어 의문법의 긍정과 부정」, 『국어학』 11, 89-114.
- 한송화(2014). 「구어 언어자료에 나타난 장형부정과 단형부정의 사용과 부정의 답화 기능」, 『어문론총』60, 113-141.
- Chafe, W. (1994),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The Flow and Displacement of Conscious Experience in Speaking and Writ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1*. John Benjamins. Pub.
- Halliday, M. A. K., McIntosh, A. & Stevens, P.(1964), *The Linguistic Sciences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Longmans.
- Halliday, M. A. and Z. L. James., (1993). A quantitative study of polarity and primary tense in the English finite clause. *Techniques of description: Spoken and written discourse*. London: Routledge, 32~66.
- Halliday, M. A. K. and C. M. I. M. Mstthiessen. (1999), *Construing Experience Through Meaning: A Language-based Approach to Cognition*. Continuum.
- Halliday, M. A. K. and C. M. I. M. Mstthiessen. (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4th Edition). London: Routledge.
- Horn, L. R. (1991), Given as new: When redundant affirmation isn't. *Journal of Pragmatics* 15(4), 305-328.
- Israel, M. (2004), The Pragmatics of Polarity. *The handbook of Pragmatics*, 701~723.
- Morante, R., Schrauwen, S., & Daelemans, W. (2011), Corpus-based approaches to processing the scope of negation cues: an evaluation of the state of the art. *In Proceedings of the Ni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Semantics*, 350~354.

Wiegand, M., Balahur, A., Roth, B., Klakow, D., & Montoyo, A. (2010), A survey on the role of negation in sentiment analysis. *In Proceedings of the workshop on negation and speculation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60~68.

Strawson, P. F. (1952), *Introduction to logical theory*. London: Longman.

Stubbs, M. (2004), On very frequent phrases in English: Distributions, functions and structures. *In Proceedings of The 25th anniversary meeting of ICAME*, Verona, Italy, 19-23 May.

Stubbs, M. (2007), Quantitative data on multi-word sequences in English: The case of the word ‘world’. In M. Hoey, M. Malhberg, M. Stubbs and W. Teubert (eds.): *Text, Discourse and Corpora: Theory and Analysis*, 163-190. London: Continuum.

Stubbs, M. and Barth, I. (2003), ‘Using Recurrent Phrases as Text-type Discriminators’, *Functions of Language* 10-1, 65-108.

<첨부1. ‘아니다’의 6-gram 목록\_고빈도 30위>

구어	문어	상품평
-는 게 아니라	-는 것이 아니라	-는 것도 아니고
-은 게 아니라	-는 것은 아니다	스키니는 아니고
-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 아니라	-은 편은 아니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을 뿐만 아니라	-는 것은 아니지만
-는 것도 아니고	-는 것이 아니다	은 천은 아니네
그런 게 아니라	-은 것은 아니다	-는 느낌이 아니네
-는 게 아니고	-을 것이 아니라	구김은 장난 아니네
될 거 아냐	-은 것은 아니었	-은데 스타킹이 아닌
될 거 아니야	-은 것이 아니다	-는 것이 아니라
-는 게 아니고	-을 뿐만 아니라	-는데 네이비가 아닌
-는 게 아니구	-는 것이 아닌가	도 라운드가 아니라
-은 게 아니구	-는 것이 아니었	으로 표기 절대 아님
될 거 아니예요	-는 것이 아니고	한여름용은 아닌 것
-었을 거 아니야	-었을 뿐 아니라	-은 것이 아니라
-은 거 아닌데	-는 것이 아닐까	-은 것은 아니지만
되는 거 아니야	-는 일이 아니다	은 스키니가 아니라
-을 뿐만 아니라	-는 것이 아닌가	-은 것은 아니고
-는 것이 아니고	-는 것도 아니다	-을 정도는 아니고
-는 건 아니지만	-은 것이 아니고	은 스키니는 아닌
-는 게 아니니까	-는 것은 아니었	-는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는 것은 아니지만	-은 것은 아닌데
-은 거는 아니었	-어도 과연이 아니다	-은 편은 아니고



-는 건 아니지만	-은 것이 아닌가	-은 편은 아닌데
-는 건 아닌데	-은 일이 아닐까	-은 편이 아니라
되는 거 아닌가	일뿐 아니라	은 스키니가 아닌
-은 것도 아니고	-는 것이 아니었	하는 거 아닌가
-은 것이 아니라	은 다름 아닌	-은 건 아니예요
-는 게 아닌가	-은 것은 아니지만	스키니는 아닌데요
-는 게 아니야	-는 것도 아니고	-는 것은 아니고
-는 것이 아닌가	-은 일이 아니었	-는 편이 아닌데

남길임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1566

전화 번호: 053-950-5111

전자 우편: nki@knu.ac.kr

원고 접수일: 2017. 05. 23

원고 수정일: 2017. 06. 24

계재 확정일: 2017. 06. 24